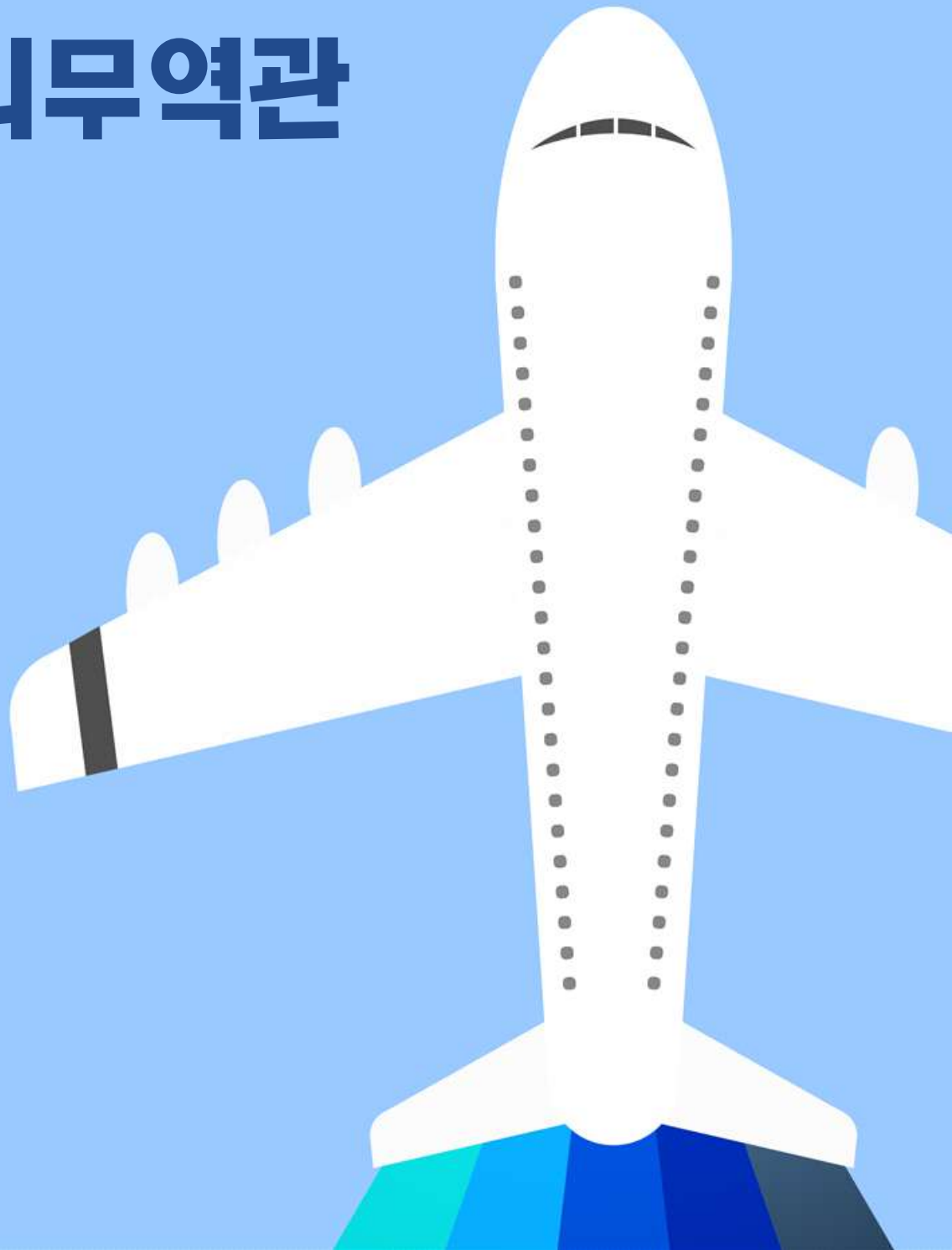


2023 해외출장 가이드

# 호주 시드니무역관

*Australia*



## 목 차

I. 호주 개황	01
II. 호주 역사·정치·사회	04
III. 호주 경제·무역·투자	08
IV.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26
V. 호주 체류 정보	32
VI. 시드니무역관 안내	40

## I. 호주 개황

### 1. 일반사항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9만km <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 도	캔버라(Canberra)
인 구	2,612만명(호주통계청, 2022.9)
민 족	영국계(33.0%), 호주계(29.9%), 아일랜드계(9.5%), 스코틀랜드계(8.6%), 중국계(5.6%) 등 (호주통계청, 2021)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기독교(43.9%), 이슬람교(3.2%), 힌두교(2.7%), 불교(2.4%) 등 (호주통계청, 2021)
행정 구역 및 주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주(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 시드니, 뉴캐슬, 울릉공</li> <li>- 빅토리아(Victoria) : 멜버른, 질롱</li> <li>- 퀸즐랜드(Queensland) : 브리즈번, 골드코스트</li> <li>- 서호주(Western Australia) : 퍼스</li> <li>- 남호주(South Australia) : 아들레이드</li> <li>- 타즈매니아(Tasmania) : 호바트</li> </ul> </li> <li>○ 2개 준주(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캔버라</li> <li>-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 다윈</li> </ul> </li> </ul>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ng Charles III 영국 국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li> </ul> </li> <li>○ Anthony Albanese 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당선, 집권당 교체</li> </ul> </li> </ul>

<호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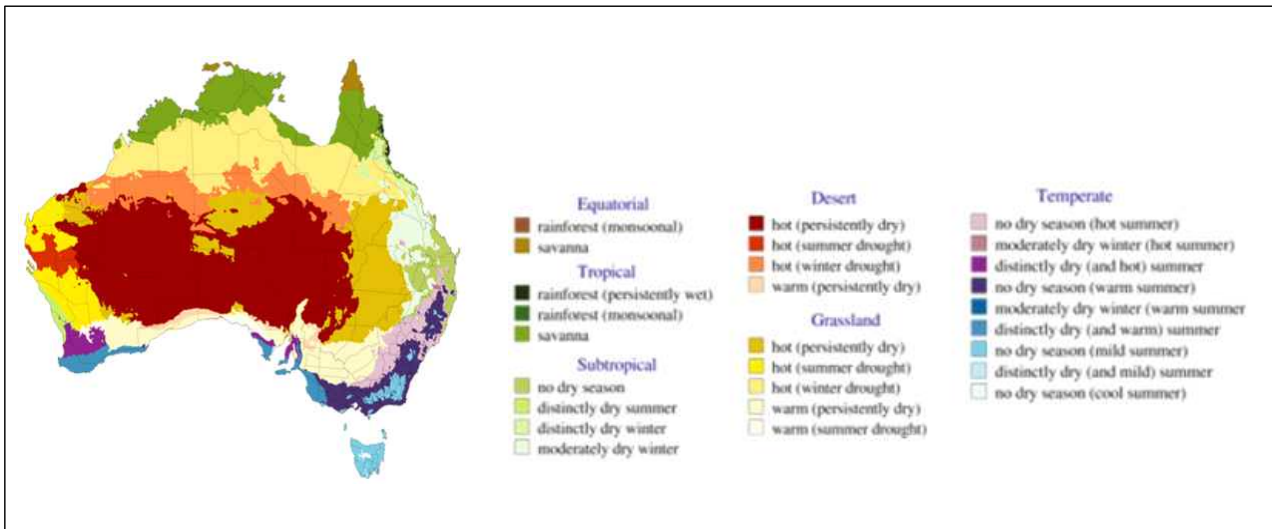
2. 국기와 국장

	<p>○ 호주의 국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측) 유니언 잭 : 영연방의 일원임을 상징</li> <li>- (하단) 칠각 별 : 연방의 별(Star of Federation) * 호주 6개 주와 준주를 뜻하는 7각 별</li> <li>- (우측) 5개의 별 : 남십자성을 상징 *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li> </ul>
	<p>○ 호주의 국장(Coat of Arms of Austral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의 7개 각을 가진 별은 연방의 별 (Commonwealth Star)로 6개의 주와 테리토리를 상징</li> <li>-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및 조류인 캥거루와 에뮤는 진보를 의미</li> <li>- 배경의 나무는 노란색 아카시아 꽃나무로 호주 국화이며 호주 국가 색상인 금색, 초록색이 여기서 유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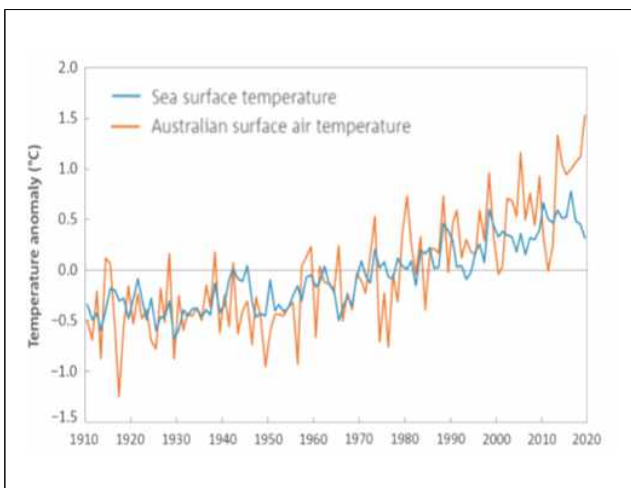
### 3. 기후

-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함.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임.
- 연평균 강수량은 483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음.
- 호주는 1910년 기상관측 이래 연평균 기온이  $1.44 \pm 0.24$ 도 상승했으며 이상 고온, 폭우 등 급격한 날씨변화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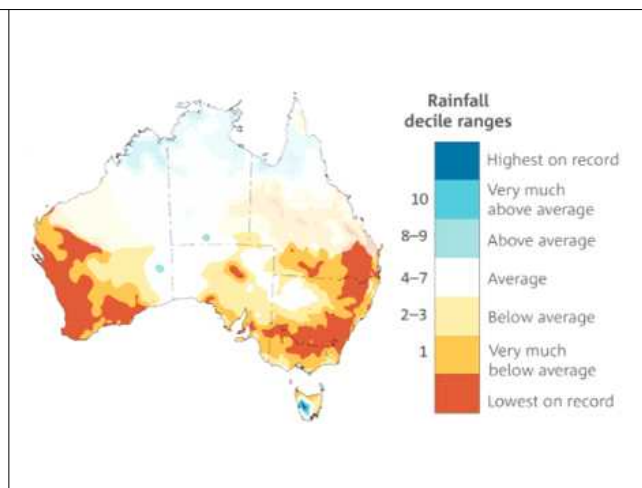
<호주 지형 분류>



<호주 기온 변화>



<호주 강수량 변화>



자료원 : 호주 기상청(2020)

## II. 호주 역사·정치·사회

### 1. 호주의 역사

#### ○ (~1700년대) 유럽인 출현 이전 원주민 시대

- 최초의 호주 원주민(Aborigine)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대륙과 가깝게 근접하였던 4~7만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왔으며 고대 인류와 DNA가 가장 비슷함. 호주 원주민들은 수백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로 추정됨.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이에 1788년부터 백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함.

#### ○ (1800 ~ 1900년) 영국 영토로 선언 이후 이민 시대 시작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인에 의해 호주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보타니 베이에 상륙, 영국 영토로 선언함.
- 1788년 영국 아서 필립 함장은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호주로 인솔하여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1823년부터는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되었고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배해지고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 (1901 ~ 1999년) 연방국가로 독립 후 다양한 출신의 이민국가로 변화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가 연합해 영연방을 설립함. 1913년 캔버라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 후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42년 외교권과 국방권을 얻어 자치령에서 독립국으로 발전하였고 제 1, 2차 세계 대전에 뉴질랜드와 참전하였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함.
-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1971년 OECD에 가입 했으며 1973년에는 백호주의를 폐지, 1975년 인종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민이 자유로워져 인구가 급증함.

○ (2000 ~ 2021년) 아·태지역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

- 2000년 역대 두 번째로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2008년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총리 케빈 러드가 호주 원주민, 도둑맞은 세대에게 대국민 사과함.
- 2010년 6월 24일, 제 27대 총리로 줄리아 길라드가 여성 최초로 선출되고 2012년 OECD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됨.
- 2018년 8월 24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국민연합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30대 총리로 취임.
- 2019년 말 역사상 최악의 산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분기 경기불황 선언 하지만 2020년 3월 20일 국경을 봉쇄하고 내수 경기회복에 주력한 결과 2020년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호주의 역사적 순간들>

		
<p>초기 원주민 거주 시대</p>	<p>1770년 제임스 쿡, 영국영토 선언</p>	<p>1850년대 골드러시</p>
		
<p>1901년 1월 1일 독립</p>	<p>1956년 멜버른 올림픽 개최</p>	<p>1959년 오페라하우스 완공</p>
		
<p>2008년 호주 총리, 대국민 사과</p>	<p>최초의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p>	<p>2019년 말, 산불</p>

## 2. 호주의 정치 체계 및 현황

### ○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 국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

- 호주 정부 시스템은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 지역 의회 순이며 각각의 수장은 연방 총리(Prime Minister), 주 총리(Premier), 지역 자치장(Mayor)임.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 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든 먼저 제안이 가능.

### ○ 국내정치 현황

- 2022년 5월 21일 개최된 제 47회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151석 중 77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前 여당이자 유력 경쟁당인 자유연립당을 제치고 8년 9개월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함. 현 호주 총리이자 노동당 당수는 앤서니 알바니즈로 2019년 노동당 당수 빌쇼튼의 사임과 함께 당 대표로 당선됨.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3. 호주의 사회 현황

#### ○ 사회 구성원 특징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호주 인구는 약 2,612만 명으로 연령에 따른 인구 구성은 0~14세(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3%, 15~64세(노동 인구)가 64.6%, 65세(노인인구) 이상이 17.1%를 차지함.
- 2006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비중이 2050년에는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아시아계 호주인은 호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중국, 인도,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를 점유함. 호주의 중국계 이민자는 120만명, 인도계 이민자는 62만명, 필리핀계 이민자는 30만명, 한국계 이민자는 12만명, 일본계 이민자는 7만명임.
- 중국계 호주인은 시드니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큰 인종 계통(Ancestry) 구성원으로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호주 소비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 근로환경

- 호주는 전 세계 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 회계연도 2022/2023년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2022년 7월 1일 부 전년 보다 5.2% 인상된 시간당 최저 임금 21.38 호주달러가 적용되고 있음.
-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이며 이외에 추가 근무시간을 갖기도 하나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됨.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 4주의 연차 휴가 및 연 10일 정도의 병가를 가지며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피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 복지환경

- 호주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정부기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되며 실업급여, 구직수당, 그 외 복지수당 지급을 관리함.

### Ⅲ. 호주 경제·무역·투자

#### 1. 호주의 경제

##### (1)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 (%)	1.9	-2.4	4.7	3.7
명목 GDP (십억\$)	1,392	1,359	1,633	1,651
1인당 명목 GDP (\$)	54,464	52,825	60,058	63,833
물가상승률 (%)	1.8	0.9	3.4	6.6
실업률 (%)	5.1	6.5	5.1	3.7
외환보유고 (백만A\$)	58,741	43,007	51,579	56,797
정부부채 (% of GDP)	34.5	39.5	39.5	42.5
이자율 (%)	0.75	0.1	0.1	3.1
총 수출액 (백만\$)	270,982	250,611	344,864	412,224
총 수입액 (백만\$)	213,750	203,160	247,720	289,200
무역수지 (백만\$)	57,232	47,451	97,144	123,024
해외직접투자 (십억A\$)	2,966.5	3,051.4	3,326.7	N/A
외국인직접투자 (십억A\$)	3,923.7	4,043.8	4,136.1	N/A

주: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전년대비 증감률), 투자통계는 누계기준, 이자율은 12월 기준

자료원: IMF, 호주 통계청, 호주 준비은행, Parliament of Australia, Global Trade Atlas, EIU, UNCTAD Stat

## (2) 주요 경제특징

### ○ 지역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전체 인구의 77%, GDP의 71.6%를 점유함.

<호주 주요 주별 GDP 비중>

주(State)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기 타
GDP 비중 (인구)	30.6% (819만명)	23.2% (666만명)	17.8% (535만명)	28.4% (592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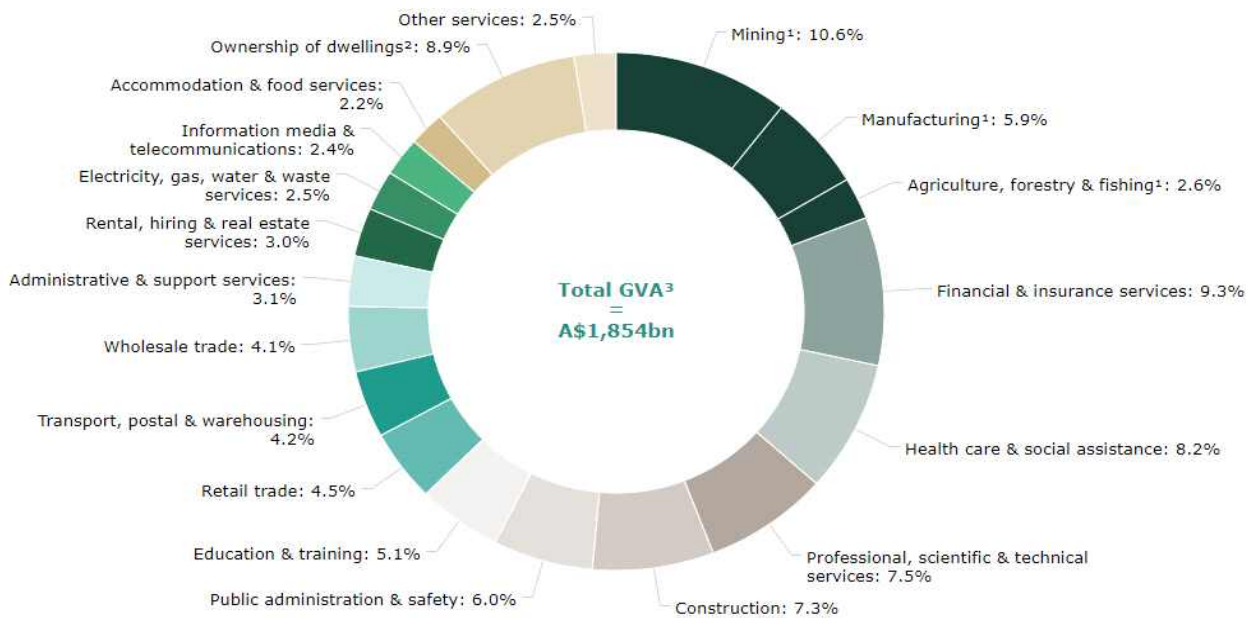
주: 주별 GDP 2022년 6월 기준, 인구 2022년 9월 기준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2)

### ○ 산업별 GDP 비중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금융, 의료, 교육, 관광)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광업, 에너지, 농·축산업이 발달함.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주: 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2), 호주 무역투자진흥기관(Austrade 2022)

- (농·수산·임업) 총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며 전체 GDP의 2.6%를 점유함.
- 농·수산·임업 총수출의 86%는 아시아 8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됨.
- 2023-24년 호주의 농업 부문 생산 가치는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하여 810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가축 생산은 350억 호주달러 규모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돌파구 또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호주의 농축산업 교역 파트너 다변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밀 : 150억 호주달러, 3,920만톤 생산	. 소고기 : 140억 호주달러, 192만톤 생산
. 보리 : 47억 호주달러, 1,410만톤 생산	. 양고기 : 44억 호주달러, 74만톤 생산
. 카놀라 : 61억 호주달러, 830만톤 생산	. 우유 : 58억 호주달러, 80억 리터 생산

주: 2022-23년 예측치

자료원: 호주농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2022)

- (광업) 호주는 석탄, 철광석, 원유뿐만 아니라 신 광물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70% 가량이 자원 수출임.
- 2022년 기준, 호주 전체 수출액 약 4,126억 달러 중 자원·에너지 수출이 전체의 67% 비중을 차지함(HS Code 27, 26 기준).
-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수출 제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호주의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이에 따른 핵심광물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31%), 생산량 세계 1위(36%)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 생산량 세계 3위(8%)
. 매장량 세계 1위 : 금(22%), 금홍석(63%), 납(40%), 우라늄(32%), 아연(27%) 등
. 기타 : 구리, 코발트, 은, 텅스텐, 리튬, 바나듐, 티탄 철광 등 매장량 세계 2위

주: 2021년 12월 집계 기준

자료원: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2022)

- **(제조업)** 2022년 기준, GDP 기여 비중 5.8%이나 첨단 기술 적용으로 국가 주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상
- 호주는 높은 임금과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환경 개선으로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난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급 차질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선진화를 강화하고자 2019년 4차 산업 성장 계획 Industry 4.0에 이어 2020년 제조업 현대화 전략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를 발표하고 15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호주 첨단 제조업은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3,000억 호주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호주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점 분야**

- |                 |                |
|-----------------|----------------|
| ·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 ·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
| · 식음료           | · 방위           |
| · 의료바이오         | · 우주항공         |

자료원: 호주 연방정부(2021)

○ **주요 유망산업**

-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는 2022년 6월에 2030년까지 호주의 탄소 중립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제로 탄소 배출 목표는 2050년을 목표로 함.
- 2023년 3월에는 연방정부의 주력 기후 대응 정책인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safeguard mechanism) 개혁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법제화됨.
- 이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 사용 증진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특히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전기차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제공 등 구체적 지원 정책을 개진할 예정임.
- 그 외 인프라, 의료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등의 분야가 미래 성장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 (3) 호주의 경제 동향

○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저조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

- (GDP) 2021년 연평균 5.2%의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1분기 3%, 2분기 3.1%로 상반기에 소폭 하락함. 한편, 같은 해 3분기에 5.9%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4분기에 2.7%로 다시 하락하였음.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연평균 1.6%의 저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호주 GDP 성장 동향 및 전망>

기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	3.0	3.1	5.9	2.7	2.3	1.6	1.3	1.3

주: 2023년 성장률은 전망치  
자료원: EIU

- (금리) 호주 준비은행은 2022년 5월 가파른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존 0.1%의 금리를 0.35%로 0.25%p 인상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0.5%p 씩 그리고 10월부터 12월, 2023년 2월과 3월에 0.25%p 씩 인상함. 2023년 4월 기준 호주의 기준금리는 3.60%임.  
\* 금리: 0.75%(’19.10)→0.50%(’20.3)→0.25%(’20.3)→0.10%(’20.11)→2.85%(’22.11)→3.1%(’22.12)→3.35%(’23.2)→3.60%(’23.3)→3.60%(’23.4)
- (실업률) 2022년 12월 3.4%까지 하락한 호주 실업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3월 기준 3.7%까지 소폭 상승함  
\* 실업률: 7.4%(’20.6)→6.6%(’20.12)→4.9%(’21.6)→4.2%(’21.12)→3.4%(’22.12)→3.7%(’23.3)
- (물가상승률) 2022년 1분기에 5.1%를 기록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7.8%까지 급등함. 2022년 4분기 기준 부동산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식음료 9.2%, 레크레이션 및 문화생활이 9.0%로 뒤를 이음.
- (소비동향) 2022년 12월 기준 호주의 한 해 가계 지출은 12.9%의 증가율을 보임. 교통 부문이 연 35.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호텔·카페·레스토랑 부문이 15.2%, 수송이 25.8%로 뒤를 이음. 반면, 주류 및 담배의 소비는 4.6% 하락함.
- (환율) 국제 자원 수요의 꾸준한 증가 및 원자재가 상승, 현지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 영향으로 2022년 6월 초 0.73 달러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11년 만의 금리 인상 등으로 10월에 0.62 달러 까지 하락함. 2023년 4월 현재 0.67선을 유지 중임.

## 2. 호주의 무역

### (1) 주요 순위

<2022 호주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77,261	-
2	미국	29,334	-
3	한국	18,712	5 ↑
4	일본	17,047	1 ↓
5	싱가포르	13,511	2 ↑
6	태국	12,036	2 ↓
7	말레이시아	11,895	1 ↓
8	독일	11,414	3 ↓
9	대만	7,845	5 ↑
10	인도	6,877	1 ↓
총 수입액		289,199	-

<2022 호주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1	중국	119,611	-
2	일본	79,900	-
3	한국	35,638	-
4	대만	20,652	2 ↑
5	인도	20,267	1 ↓
6	미국	13,863	1 ↓
7	싱가포르	13,118	-
8	베트남	9,560	2 ↑
9	말레이시아	9,402	3 ↑
10	뉴질랜드	8,895	2 ↓
총 수출액		412,223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22 호주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광물성 연료	45,685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9,291
3	자동차 및 부품	35,732
4	전기·전자기기	29,468
5	의약품	13,036
6	광학·영상·의료기기	9,415
7	귀금속류	8,055
8	플라스틱류	7,738
9	철·철강제품	6,399
10	가구류	5,684

<2022 호주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광물성 연료	174,859
2	광물	100,839
3	귀금속류	19,352
4	곡류	13,509
5	육류	11,397
6	소금·황·토석류	8,448
7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7,237
8	종자·식물류	6,211
9	알루미늄류	4,865
10	원자로·보일러·기계류	4,86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세
  - 2022년 기준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7,0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
  - 2021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역국이었으나 2022년 총 교역액 543억 달러를 기록하며 3위로 오름
  - 2022년에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대만의 경우 68%의 증감률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484,109	484,732	453,966	592,584	701,423
1	중국	143,326	143,326	159,837	202,283	196,873
2	일본	58,171	54,383	42,217	61,657	96,948
3	한국	27,562	25,945	22,313	36,299	54,351
4	미국	33,008	35,270	36,840	37,712	43,198
5	대만	11,320	12,508	10,196	16,942	28,498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호주의 수출은 2020년 소폭 하락했으나 2022년까지 상승세
  - 2021년 호주의 총 수출액은 3,448억 달러였으며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2년 전년대비 약 20% 상승한 4,122억 달러 기록
- 호주의 수입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소폭 하락했으나 2021년도부터 지속 증가
  - 호주의 총 수입액은 2021년 2,477억 달러이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2,892억 달러임
- 호주의 무역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하락했으나 2021년과 2022년 상승세 회복
  - 2021년 호주는 전년대비 941억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2022년에는 31% 증가해 무역수지가 1,23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흑자 1,000억 달러 돌파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257,097	270,982	250,796	344,865	412,224
수입	227,002	227,012	203,170	247,719	289,200
무역수지	30,086	57,232	47,625	94,146	123,02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3) 수출

○ 주요 수출 품목

- 호주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 등)는 2021년과 2022년 꾸준한 수출 증가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3% 이상 증가한 1,748억 달러를 기록
- 곡류, 육류 등 농산물 및 소금·황·토석류, 종자·식물류 수출 상승세
- 2021년에는 주요 10대 수출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22년에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광물, 귀금속류 수출액이 감소세를 보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품 목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61,247	-30.26	95,273	55.56	174,859	83.53
2	광물	93,936	17.93	131,772	40.28	100,839	-23.47
3	귀금속류	19,591	8.71	20,640	5.36	19,352	-6.24
4	곡류	3,774	10.35	9,824	160.31	13,510	37.52
5	육류	10,020	-11.58	10,983	9.61	11,397	3.77
6	소금·황·토석류	790	-33.42	1,436	81.81	8,448	488.44
7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5,138	-18.08	6,324	23.09	7,237	14.45
8	종자·식물류	1,414	4.91	3,083	118.10	6,212	101.49
9	알루미늄 제품	2,932	-9.08	4,252	45.02	4,865	14.42
10	원자로·보일러·기계류	4,299	-9.61	4,597	6.95	4,861	5.73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5% 이상을 차지함
- 2021년에는 인도가 호주의 수출 대상국 4위였으나 2022년 태국이 대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출 증가 추세
- 대한국의 수출 경우 2021년 전년대비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69억 달러, 2022년에는 356억 달러 수출 기록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101,214	40.36	133,932	38.84	119,611	29.02
2	일본	30,015	11.97	46,437	13.47	79,901	19.38
3	한국	16,059	6.40	26,851	7.79	35,639	8.65
4	태국	6,806	2.71	12,077	3.50	20,652	5.01
5	인도	6,898	2.75	14,537	4.22	20,267	4.92
6	미국	13,119	5.23	12,127	3.52	13,864	3.36
7	싱가포르	8,180	3.26	11,564	3.35	13,118	3.18
8	베트남	4,414	1.76	7,115	2.06	9,561	2.32
9	말레이시아	4,813	1.92	6,318	1.83	9,403	2.28
10	뉴질랜드	6,981	2.78	8,429	2.44	8,895	2.16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4) 수입

○ 주요 수입 품목

- 2022년 호주 수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의 수입이 전년대비 76%의 증가율로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뒤를 이어 의약품 수입이 21% 오름
- 호주 귀금속류 수입액은 2021년에 전년대비 12% 하락 후 2022년 증가
-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철·철강제품, 기계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전기·전자기기, 광학·영상·의료기기, 가구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증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15,910	-41.03	25,873	62.53	45,685	76.57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0,815	0.74	36,695	19.08	39,292	7.08
3	자동차 및 부품	24,057	-9.87	33,234	38.15	35,733	7.52
4	전기·전자기기	24,162	-1.15	27,182	12.50	29,468	8.41
5	의약품	8,758	4.83	10,706	22.25	13,036	21.76
6	광학·영상·의료기기	8,079	-0.44	9,245	14.43	9,416	1.85
7	귀금속류	8,717	31.95	7,652	-12.22	8,056	5.28
8	플라스틱류	6,214	6.41	7,278	17.12	7,739	6.33
9	철·철강제품	4,498	-0.02	5,636	25.30	6,400	13.55
10	가구류	4,753	4.34	5,561	17.00	5,685	2.22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2022년 기준 호주 전체 수입액의 26% 이상을 점유하며, 2위 수입국인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2.5배 이상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이후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등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상위 10대 수입국 중 미국, 독일을 제외한 8개국이 아시아에 위치
-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2021년 94억 달러에서 2022년 약 2배 증가해 18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호주의 수입 대상국 순위는 8위에서 3위로 큰 폭 상승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58,623	28.85	68,351	27.59	77,262	26.72
2	미국	23,722	11.68	25,585	10.33	29,335	10.14
3	한국	6,254	3.08	9,449	3.81	18,713	6.47
4	일본	12,202	6.01	15,221	6.14	17,048	5.89
5	싱가포르	5,075	2.50	9,502	3.84	13,512	4.67
6	태국	9,871	4.86	11,319	4.57	12,036	4.16
7	말레이시아	6,680	3.29	10,044	4.05	11,896	4.11
8	독일	9,428	4.64	10,754	4.34	11,415	3.95
9	대만	3,389	1.67	4,866	1.96	7,845	2.71
10	인도	3,776	1.85	6,078	2.45	6,877	2.38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5)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22년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약 18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으며 수입은 449억 달러로 36% 상승. 한국의 對호주 무역수지는 261억 달러 적자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US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출	7,891(-17.9)	6,189(-21.6)	9,750(57.6)	18,753(92.33)
수입	20,608(-0.5)	18,707(-9.2)	32,918(76.0)	44,929(36.49)
무역수지	-12,717	-12,518	-23,167	-26,17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23년 1, 2월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각 13억,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수입은 41억, 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8억, 20억 달러 적자인 상황

<2023년 1~2월 기준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

구분	2023년1월	2023년2월
수출	1,302(22.74)	1,494(36.97)
수입	4,119(4.15)	3,492(5.18)
무역수지	-2,894	-1,99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22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對호주 수출액 증가

- 전년대비 무기화학물·희토류(338%), 광물성 연료(220%), 의약품(197%), 화학공업  
생산물(75%), 알루미늄류(52%), 자동차 및 부품(32%) 순으로 수출이 크게 상승
- 전기·전자기기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2021년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철도장비 및 부품은 수출액이 30% 감소
- 2022년 상위 10개 품목 외에 귀금속류의 경우 전년대비 약 6배 증가한  
1억2,878만 달러 수출 기록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1,650	-53.3%	3,400	106.1%	10,898	220.5%
2	자동차 및 부품	1,863	-13.4%	2,490	33.7%	3,303	32.6%
3	전기·전자기기	681	-1.8%	615	-9.6%	606	-1.5%
4	보일러·기계류	409	1.7%	516	26.3%	587	13.8%
5	의약품	13	36.2%	179	1246.7%	532	197.8%
6	플라스틱류	170	-10.3%	237	39.4%	239	1.1%
7	무기화학물·희토류	9.6	-20.7%	44	359.7%	193	338.4%
8	철도장비 및 부품	105	227.2%	261	147.8%	181	-30.5%
9	화학공업 생산품	40	77.1%	102	151.7%	178	74.9%
10	알루미늄류	123	-4.7%	102	-17.0%	155	52.2%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입) 한국의 對호주 수입은 광물성 연료, 광물 등 에너지 수입 비중 높음
  - 주요 수입 품목 중 소금·황·희토류(547%), 면(435%), 곡류(126%) 수입이 세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큰 폭 상승
  - 철광, 동광, 아연광 등 원자재 수입이 2021년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 금은 2020년부터 수입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수입액이 493.7% 상승하며 11억3,900만 달러를 기록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3,294	-37.7%	7,639	131.9%	11,980	56.8%
2	광물	6,183	14.4%	9,959	61.1%	7,091	-28.8%
3	육류	1,236	1.3%	1,561	26.3%	1,680	7.6%
4	알루미늄	937	42.6%	573	-38.8%	1,011	76.3%
5	곡류	301	-1.5%	343	14.2%	777	126.3%
6	귀금속류	206	114.3%	1,173	470.9%	642	-45.3%
7	구리	119	19.7%	262	119.7%	211	-19.5%
8	종자·식물류	81	-2.3%	147	80.8%	166	12.6%
9	면	0.36	-58.4%	19	5167.8%	103	435.6%
10	소금·황·희토류	14	5.7%	12	-15.4%	81	547.9%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3. 호주의 투자

#### (1) 투자유치 동향

※ 호주의 연간 해외투자 공식통계는 호주 통계청에서 차기 년도 5월에 업데이트되어 2022년 통계는 2023년 5월 이후 업데이트 예정임.

####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1년 투자 유치액은 누계 기준 4조 1,361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923억 호주달러 증가함. (호주 통계청은 2001년 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1조 53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25.5%를 차지,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이 뒤따름.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2021년 누계 기준 298억 호주달러로 17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투자액의 0.7%의 비중을 차지함.

<2019-2021년 국가별 호주 투자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5년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미국	1,014.3	927.3	1,053.0	25.5	3.1
2	영국	723.9	769.8	718.6	17.4	8.5
3	벨기에	348	408.6	393.5	9.5	8.6
4	일본	244.5	265.1	258.7	6.3	3.6
5	홍콩	144.3	141.1	126.9	3.1	5.8
6	싱가포르	98.9	116.0	121.4	2.9	7.0
7	룩셈부르크	87.5	107.0	92.5	2.2	6.0
8	중국	80.6	81.2	91.8	2.2	3.5
9	네덜란드	88.9	84.2	87.4	2.1	2.3
10	캐나다	60.5	66.3	76.5	1.8	13.0
<b>17</b>	<b>한국</b>	<b>31.3</b>	<b>31.1</b>	<b>29.8</b>	<b>0.7</b>	<b>4.0</b>
	합계	3,923.7	4,043.8	4,136.1	100.0	5.4

주: 통계 발표 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2021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 외교통상자원부(2022.5)

- 호주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이며 지난 5년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공학, 기술업
  - 2021년 호주 광업에의 투자금액은 누계 3,606억 호주달러로 전체의 34%를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이나 지난 5년간 1.2% 증가함.
  - 2021년부터 제조업에의 투자 정보가 재공개 되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는 2020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임.

<2019-2021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업종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광업	377.3	361.0	360.6	34.0	1.2
2	부동산업	115.5	121.1	136.9	12.9	11.7

3	금융 및 보험업	110.3	115.3	122.8	11.6	12.1
4	제조업	128.2	124.8	116.6	11.0	5.4
5	유통 및 도소매업	59.2	59.8	60.8	5.7	2.3
6	정보통신	31	31.9	34.1	3.2	6.8
7	수송 및 창고업	25.8	25.6	25.4	2.4	1.1
8	전기, 가스, 수도	22.7	24.2	24.4	2.3	7.9
9	건설업	21.4	18.7	17.6	1.7	-3.3
10	전문, 공학, 기술업	10.3	12.1	12.7	1.2	20.1
11	기타 및 미분류	144.2	137.4	149.7	14.1	4.5
	합계	1,046.0	1,031.8	1,061.5	100.0	4.7

주: 2001년-2021년 누계 투자액  
자료원: 호주 통계청(2022.5)

## (2) 한-호 투자 동향

### □ 한국의 對호주 투자

- 2022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105건, 14억 9천4백만 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예년 대비 18% 하락하였으나 투자 금액이 27% 상승함.
  - 투자 금액 기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76%, 629%, 688% 큰 폭 상승함.
  - 금융 및 보험업이 4억 6,3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 농업임업 및 어업(-83%), 도매 및 소매업(-67%) 등 역시 감소 성향 보인 한편, 전체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함.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2)는 신고 기준으로 2,510건, 266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73억 달러, 부동산업 30억 달러, 금융 및 보험업 20억 달러, 제조업 16억 달러 순임.

<한국의 對호주 투자 추이>

(단위: 백만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793
2014	72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9
2016	118	38	1,595	1,306
2017	93	23	533	698
2018	144	29	303	473
2019	119	34	880	785
2020	122	27	985	661
2021	128	28	2,261	1,178
2022	105	27	2,349	1,494
누계(1980~2022)	2,510	865	26,643	18,746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호주의 對한국 투자

○ 2022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기준 총 19건으로 15억 3천만 달러

- 호주의 해외투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임.
- 2022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 비중은 대분류 기준 제조업 81.2%, 서비스업 18.8%이며, 세부분류 기준 운송용 기계(39.3%),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37.1%), 임대업(10.8%), 금융보험(13.8%)순임. 예년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전기전자(48%)와 화공업 (25.1%) 투자는 크게 하락함.
-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1962-2021)는 신고기준 707건, 50억 5,171만 달러를 기록함.

<호주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US달러,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건수	31	45	26	33	27	15	22	19
신고 금액	85,193	79,157	142,330	2,007,357	107,573	6,322	125,242	153,005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對호주 진출기업

○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67개사 진출(2023년 4월 기준)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VIC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7		YG-1호주법인	YG-1	VIC
8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9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10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1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2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3		썬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4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5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16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17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18	에너지	LG화학	LG Chem Australia	VIC
19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0		SK에너지솔루션	SK E&S Australia Pty Ltd	WA
21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2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3		쌍용자동차	SsangYong Australia	VIC
24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VIC
25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VIC
26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27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28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29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30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VIC
31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2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33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34		LX인터내셔널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35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36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37		포스코인터내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38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39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40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41		매일유업	Mail Australia Pty Ltd	VIC
42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43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44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45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46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47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48		한국선급	Korean Register Australia Pty Ltd	NSW
49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NSW
50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51		NH농협은행	NongHyup Bank	NSW
52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53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54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55	서비스	대한항공	Korean Air	NSW
56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57		이노션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NSW
58		제일기획	Cheil Australia	NSW
59	방위/방산	한화디펜스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VIC
60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61	헬스케어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NSW
62		코스맥스엔비티	COSMAXNBT Australia	VIC
63		유한양행	Yuhan ANZ	SA
64	IT	삼성SDS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NSW
65	뷰티	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Australia	VIC
66	면세점	롯데면세점	Lotte Duty Free Australia	VIC
67	스포츠	질롱코리아	Geelong-Korea	VIC

## IV.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 1.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 (1)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 □ 일반 현황

- 면적 : 80만 km<sup>2</sup>
- 인구 : 819만명(호주 내 1위)
- 주도 : 시드니(Sydney)
- 주 수상(Premier) : Chris Minns
- 주요 도시 : 뉴카슬(Newcastle), 포트맥쿼리(Port Macquarie),  
울롱공(Wollongong),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 □ 주요 특징

-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금융, 상업,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지
  -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호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주 경제 규모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국가 경제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됨.
  - 호주의 금융, 보험 산업의 45%, 문화 산업의 50%, 제조업의 33% 가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호주 주요 기업들의 본사뿐만 아니라 호주 및 대양주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들도 다수 위치해 있음.
  - 동부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해변들은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호주인 들이 선호하는 주거, 여행, 레저 지역이며 내륙지역은 국립공원과 와인 농장들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음.
- 사계절 기후에 해변, 스키장, 온천까지 갖춘 지역
  - 북쪽과 남쪽 지역의 기후는 고도와 위치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뉴사우스웨일스 주 쪽으로 빅토리아 주 경계 근처의 Thredbo는 스키리조트로 유명하고 북쪽의 Byron Bay는 겨울에도 따뜻한 편임.

□ 주요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에 완공됨.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 가량의 관광객 유치. 구조는 지붕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 350km의 강철선 지붕 위 4,253개의 조립식틀 위에 1,056,000개의 타일이 배열, 지붕의 무게만 27,230톤임. 건물은 바다 밑 25m 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 전체 넓이는 2.2헥타이고 건물자체는 1.8헥타임.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됨.



○ **하버 브리지 (Harbour Bridge)**

1932. 3. 개통, 시드니 거주자들은 "큰 옷 걸이"라 부름.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면과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 5천만 호주달러, Arch부분 수리예산 연간 5백만 호주달러임



○ **시드니 항 (Sydney Harbour)**

항구는 Middle Harbour, Port Jackson, Parramatta River, Lane Cove River, Iron Cov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이 중심수역임. 호주 이민 및 식민역사가 1778년 동 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간만의 차도 미미,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모래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이 가능함.



○ **하이드 파크 (Hyde Park)**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 됨.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함.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음.



○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 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음. 1816년에 설립됨. 면적은 약 54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 공원으로 애용됨.



○ **세인트 메리 대성당 (Saint Mary's Cathedral)**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함.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음.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음. 성당의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임.



○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년 이라 불리는 대협곡임.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임.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음.

□ 주요 음식점

- (호주식)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 (Kingsleys Steakhouse)
  - 주소 :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95 5080
  - 홈페이지 : [www.kingsleysauststeak.com.au](http://www.kingsleysauststeak.com.au)
- (호주식) 더 미트 앤 와인 코 (The Meat and Wine Co)
  - 주소 : Ground level,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
  - 연락처 : +61 2 8629 8888
  - 홈페이지 : <https://themeatandwineco.com/>
- (호주식) 카페 시드니 (Cafe Sydney)
  - 주소 : 5 Sydney Customs House, 31 Alfred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51 8683
  - 홈페이지 : <https://cafesydney.com/>
- (한식) 본가 (Bornga Korean BBQ Restaurant)
  - 주소 : Level 1 78 Harbour St, Haymarket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4 7010
  - 홈페이지 : <https://bornga-korean-bbq-restaurant.business.site/>
- (한식) 코기 (KOGI Korean BBQ)
  - 주소 : Level 3 Market City, 9-13 Hay St, Haymarket NSW 2000
  - 연락처 : +61 417 054 555
  - 홈페이지 : <https://kogi.com.au/>
- (일식) 야마 (Yama)
  - 주소 : Shop 2-04 Level 2 QVB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9 0080
  - 홈페이지 : [www.yama.com.au/](http://www.yama.com.au/)
- (중식) 로투스 더 갤러리스 (Lotus The Galleries)
  - 주소 : The Galleries, Level 1, 500 George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47 6868
  - 홈페이지 : <https://lotusdininggroup.com/the-galleries/>

## (2) 퀸즐랜드 주(QLD)

### □ 일반 현황

- 면적 : 172만 km<sup>2</sup>
- 인구 : 535만명(호주 내 3위)
- 주도 : 브리즈번(Brisbane)
- 주수상(Premier) : Annastacia Palaszczuk
- 주요 도시 : 케언즈(Cairns), 골드코스트(Gold Coast)

### □ 주요 특징

- **농축산업, 관광업에서 광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
  - 퀸즐랜드 주에는 호주 석탄광산이 집중돼 있어 해상 수송을 통한 전 세계 제철용 원료탄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호주 최대 농경 지대 및 목축지 보유로 소고기, 곡물, 각종 야채 및 과일의 주 생산지역이며 퀸즐랜드 농업은 주 경제에 연간 100억 호주달러 규모로 기여하고 있음.
  - 퀸즐랜드의 서쪽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이나 2000년대 들어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음. 2021년 12월 이후 올해만 6번의 치명적 홍수가 발생해 수만명이 대피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함.
  - 홍수와 전염병 확산으로 주춤했던 퀸즐랜드 주는 2022년 노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들을 재개함.
  - 2022년 호주 국경이 본격 개방됨에 따라 관광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호주의 세계적인 휴양지, ‘Sunshine State’**
  - 퀸즐랜드는 열대·아열대 기후로 평균 최저기온이 영상 20.6도여서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휴가지로 인기임. 퀸즐랜드 전체 해안은 7,000km에 이르고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와 해양스포츠가 발달해 있는 골드코스트, 케언즈, 프레이저섬 등이 주 휴양지역임.

### (3) 서호주(WA)

#### □ 일반 현황

- 면적 : 252만 km<sup>2</sup>
- 인구 : 281만명(호주 내 4위)
- 주도 : 퍼스(Perth)
- 주수상(Premier) : Mark McGowan
- 주요 도시 : 프리맨틀(Fremantle), 브룸(Broome)

#### □ 주요 특징

- **원주민 거주 지역이자 호주 최대 자원 보유지역**
  - 서호주는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4만 여 년간 거주한 지역으로 유럽인들이 서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임. 호주 다른 곳과 달리 죄수 유배지로서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며 1890년대 서호주 중부와 남부 아웃백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함.
  - 호주 전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서호주는 철광석, 금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글로벌 기업인 BHP, 우드사이드 에너지, FMG 등의 광산기업들이 포진해 있음. 최근에는 세계 자원산업의 허브로 앞서나가고자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아웃백과 웅장한 해변이 어우러진 지형과 다양한 기후 분포**
  - 서호주는 면적 대비 거주민이 적어 대부분의 지역이 야생의 상태 그대로임. 붉은 사막, 파도 모양으로 굳어진 거대한 바위, 사암 돛이 형성한 협곡, 원시림이 가득한 국립공원, 해양 생물들이 해변까지 다가오는 자연환경을 보유함.
  - 서호주의 북서부 지역은 아직도 미개척지이며 퍼스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인 마가렛 리버 지역은 서호주 최대 와인 산지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굴들이 밀집해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이기도 함.
  - 서호주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쪽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북쪽으로 갈수록 열대 사바나 기후대를 보임. 중부 내륙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대로 여름철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함.

## V. 호주 체류 정보

### 1. 비자 및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규제 전면 폐지
  - 2022년 2월 21일부 백신접종(2차)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주 입국 허용
  - 2022년 4월 18일부 호주 입국 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제출 요건 폐지
  - 2022년 7월 6일부 호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2022년 9월 9일부 호주 입국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 호주 입국 상세 요건
  - 유효한 비자 소지(ETA 포함)
    -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함.
  
- 체류 기간 및 연장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자비자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ETA는 전자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 호주 내무부 공식 ETA 온라인 신청 페이지: [www.eta.homeaffairs.gov.au](http://www.eta.homeaffairs.gov.au)

<호주 내무성 ETA비자 온라인 신청서>



자료원: 호주 내무부

## 2.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 입국절차

-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카드)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호주에 착륙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 2016년 6월 20일부터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은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이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li> <li>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li> <li>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li> <li>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li> <li>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li> </ol>

자료원: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

### ○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면세 한도 성인(18세 이상) AU\$900 초과 물품, AU\$10,000 (US\$7,000) 이상 현금 휴대 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신고서 기재 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함.
-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중요).
- 통관 중 입국신고서에 미 신고한 품목 적발 시 벌금(약 AU\$340)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될 수 있음.
- 골프화(운동화)를 지참할 경우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표기해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담배 25개피 또는 시가(cigars) 25그램 이상 반입 불가

### 3. 시차

- 1시간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8시)
- 2시간(서머타임)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첫 일요일까지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7시)
- 퀸즐랜드 주의 경우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시차 없음.

### 4. 시드니 지역 날씨

-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로 겨울은 6월~8월, 여름은 12월~2월임.
- 시드니의 겨울은 한국의 초가을 날씨 정도이며 최저온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0도 내외임.
- 시드니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 달리 습도가 낮아 건조하며 최고온도는 38도 이상임.
- 호주 역시 매년 기후변화로 계절별 날씨 변화가 커지고 있음.
- 호주 기상청: <http://www.bom.gov.au/>

## 5. 환율 및 환전

- AU\$ 1 = 879.77원 / AU\$ 1 = US\$ 0.67 (2023.4.12. 기준)
- 호주 내 미화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호주화 환전은 필수이며 한국 내 환전이 유리함. 호주 내 환전은 소액의 경우 은행과 환전소의 차이가 없으며 환전 창구에서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함.

## 6. 전력 및 콘센트 사용

- 전압은 240볼트, 50Hert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 시, 삼각 플러그 어댑터가 필요함.

## 7. 전화

- 호주에서 외국전화시 0011 누르고 국가번호 시작
- 수신자부담전화 이용시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 긴급 전화: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 8. 교통

### ○ 버스

- 버스 이용 시 승차해야할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오면 손을 흔들어야만 정차함. 승차시 버스카드를 Tap on 하고 하차 시에도 Tap off해야 이동 구간 및 시간대에 따른 요금이 청구됨.
- 버스 내 현금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능해 교통카드 선구매가 권장되며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함.
-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됨.
-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 가능함.
- 시드니 교통카드 Opal 웹사이트: <https://transportnsw.info/tickets-opal/opal>

○ **트레인/메트로**

- 한국에서의 지하철을 호주에서는 트레인으로 부르며 지하철역도 트레인 스테이션임. 노선이 단순하여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되지만 방문상담이 있거나 초행길일 경우 시간의 여유를 많이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의 트레인 스테이션 출구에는 번호 매겨져 있지 않고 출구가 위치한 거리에 따라 구분하므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음.

- 시드니 트레인 노선:

<https://transportnsw.info/document/4746/sydney-rail-network-map-5-jan.pdf>

○ **택시**

- 시드니를 처음 방문해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됨.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 기본요금은 3.60 호주달러임.
- 호주 내 우버(UBER), 올라(Ola), 디디(DiDi)와 같은 공유택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도착지를 미리 선택한 후 이동, 이동 경로, 예상 도착 시간 및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

**9. 기타 정보**

- **(상점 운영시간)** 대형 마트를 제외한 일반 상점은 대부분 5~6시 사이 문을 닫는데 매주 목요일은 쇼핑 데이로 지정되어 있어 상점들이 저녁 9~10시까지 영업(지역마다 상이).
- **(주류 구매)** 주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Liquor land, Dan Murphy's 등 전문 리쿼어샵(Liquor Shop)에서만 구매 가능. 만 18세 이상이어야 구매가능 하며 성인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구매자 동행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아울러, 호주는 해변가 및 일부 야외에서도 주류 소비를 금지하고 있음.

- **(통신·인터넷)** 호주에서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한국보다는 다소 속도가 느림.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는 이용객에 한해 와이파이 이용을 제공하지만 별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도심에서 떨어진 국립공원, 캠핑장 등의 경우 모바일 기지국이 부족해 전화 사용도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보행신호)**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종종 시드니 시내에서는 경찰들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함.
- **(운전)** 호주는 영국식 교통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반대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음. 처음 호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현지 교통 방향 및 법규 등에 유의해야 함. 시드니 소재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차가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337 호주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되며, 스피커폰으로 대화 시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됨.
- **(자외선)** 호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임. 겨울은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있어 밤과 이른 새벽은 한국 늦가을만큼 추우므로 겨울옷, 머플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팁)**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는 가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팁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됨.

## 10. 공휴일(2023년 시드니 기준)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시드니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2023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23년
신년 (New Year's Day) **신년(1월 1일) 대체 휴일	1월 2일 월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 Day)	1월 26일 목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7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8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9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10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5일 화요일
여왕 탄생일 (Queen's Birthday)	6월 12일 월요일
*은행 휴일 (Bank Holiday)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8월 7일 월요일
노동절 (Labour Day)	10월 2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월요일
**박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화요일

자료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 11.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61 2 6270 4100	캔버라 소재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61 2 9210 0200	시드니 소재
경찰(범죄신고)	000	-
응급 구조대	000	-
콜택시(St. George Cabs)	+61 13 21 66	-
콜택시(Legion Cabs)	+61 13 14 51	-

## VI. 시드니무역관 안내

- 관할지역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퀸즐랜드 주, 서호주, 북부준주, 수도준주
  - (도서국)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외 남태평양 대양주 군도
- 영문 주소
  - Korean Trade Commission, KOTRA  
19.01, Level 19, 57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연락처(현지 기준)
  - (전화) 02-8233-4000, (이메일) info@kotra.org.au
- 웹사이트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203>
- 근무일(현지 기준)
  - 월~금 08:30 ~ 17:00 (중식: 12:00 ~ 13:00)
- 찾아오는 길(시드니 공항 → 무역관 기준)
  - (택시) George Street 570번지(George Street과 Bathurst Street의 교차로)에서 하차, 약 30 여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55.00 호주달러(약 4만 9,300원) 내외
  - (기차) 시드니 Kingsford 공항역(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시티(City) 방향 기차를 이용해 타운홀(Town Hall) 역에서 하차, George Street 방향 2번 출구로 나온 뒤 QVB를 등지고 도보로 조금 걸어가면 George Street와 Bathurst Street 코너에 위치한 건물(\*KFC 대각선 방향) 약 20분 소요 (피크타임 기차 편도요금: Opal 카드 소지 시 18.79 호주달러, 일반편도 약 19.80 호주달러)
- 무역관 연락처

직위	성명	전화	비고
관 장	박창은	02 8233 4002	무역관 업무 총괄
부관장	김하중	02 8233 4010	기획 예산, K-Move
과 장	김여빈	02 8233 4011	투자, 조사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